

주한 미군 지휘관들과의 교류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45년 8월15일 일본 무조건항복으로 시작된 광복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미군정청(하지장군)의 통치 하에 있게 되고, 이어 정부 수립후에도 2차대전 후 미소 냉전시대와 남북 대치 상황에서 6.25전쟁 발발에 따라, 미군의 참전으로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휴전에 이르게 되고, 전후 복구와 안보, 경제 부흥에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한국 안보 체제에는 항상 미군이 존재해 왔다.

한국정치인과 미군 지휘관의 관계는 이승만정부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6.25전쟁 초기부터 맥아더장군(유엔군사령관)이 한국을 지지하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하다가 당시 트루만대통령의 갑작스런 해임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어 밴플리트 미육군8군사령관은 맥아더장군에 못지않은 지한파로서 한국을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전시는 물론 전후에도 한국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다.

운정의 미군 지휘관들과의 돈독한 교류와 유대는 밴플리트장군부터 시작된다. 1951년 한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한 밴플리트장군이 육군사관학교를 개교하

도록 지원하고, 특히 대대장급 영관 장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보병, 포병 육군장교단 250명(1차)을 선발하여 미국 본토에 있는 포트 베닝보병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 이 유학장교단에 운정도 선발되는 인연을 갖게되는 것이다. 밴플리트장군은 1953년 육군대장으로 퇴역한 후에도 한국을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혁명이 일어나자 두달 후 운정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혁명 초기의 불안정한 정세를 극복하는 데에 군사적, 외교적,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미국 정부가 혁명정부에 대한 정책을 우호적으로 전환하도록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맥아더 원수 (Douglas MacArthur, 1880 ~ 1964)



1930년에 미국 육군 참모총장(대장)을 지내고, 이후 필리핀 군 고문, 미국 극동군 사령관, 2차대전시 미국 군 태평양지역 총사령관,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에 이어

1950년 주한 UN군 사령관으로 6.25전쟁 수행 중, 트루만대통령과의 전략적 견해 차이로 해임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맥아더원수는 김종필부장에게 “한국이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죽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만주 폭격을 주장했다.”고 하며, 한국전쟁의 휴전은 “미국이 잘못을 저질렀다. 북진 통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남북분단이 된 것이다”고 회고했다. 이어 망명 후 하와이에서 요양중인 이승만 전대통령이 귀국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맥아더장군은 예편 후 기업인과 언론인으로 활약하다가 1964년에 84세를 일기로 타계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서울에 빈소를 차려 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1962.10.31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이 뉴욕 아스토리아호텔에 기거중인 맥아더 원수를 예방했다.

맥스웰 테일러 장군 (Maxwell D. Taylor, 1901 ~ 1987)



전후 1951년까지 베를린에서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낸 테일러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3년에 미8군사령관(1953-1955)으로 참전했다. 테일러는 1959년 7월에 퇴역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그를 통합참모본부장에 임명해 1964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시켰다. 그 후 1965년까지 남베트남 대사를 지내며 베트남 전쟁에 조언을 한 테일

러는 이후 대통령 고문을 거쳐 방위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1962.10.27 미국 공식 방문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테일러 장군을 방문하고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요청하였다. 왼쪽은 정일권 주미대사.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삼은 밴플리트 장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맥아더원수의 각별했던 유대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밴플리트장군은 맥아더 해임 후 리지웨이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하자 미 제8군사령관에 임명됐다. 1951년 4월 중순의 일이다.

밴플리트는 일제강점기 조국광복을 위해 싸워 온 한국인들의 강인함을 보았으며 서양인이 한국인을 '동양의 아일랜드인'로 부르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밴플리트 장군은 전쟁 중 양국 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며 친분을 유지하며 흠모했다.

밴플리트 장군이 1951년 중공군 4월 공세 때 서울은 프랑스의 파리나 그리스의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서울을 사수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밴플리트 장군은 워싱턴과 한국정부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군은 사령관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주한미국대사를 맡아달라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유는 미국의 휴전정책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강요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밴플리트는 한국민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



었다. 그런 한국과 이승만에게 휴전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후 밴플리트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서거(1965. 7.19)하자, 유해를 모시고 한국에 와 장례식을 모두 지켜 본 뒤 귀국했다. 그런 점에서 밴플리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다. 밴플리트도 이승만의 조국,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여겼다.

밴플리트장군의 아들

지미 중위 전사戰死에 담긴 이야기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3월 미8군 총사령관으로

제임스 밴플리트 사령관 (James Van Fleet, 1892~1992)



중량의 다섯 배가 넘는 포탄을 퍼붓는 무차별 포격으

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격퇴했다. 한국전에 참전한 외아들 지미 밴플리트 2세 공군 대위가 B-26 폭격기 조종 중 적의 대공포를 맞아 실종됐을 때 구출작전 중단을 지시했다. 53년 육군 대장으로 퇴역한 뒤에도 한국 재건사업에 도움을 줬다.

역대 주한 유엔군사령관과 미군사령관을 지낸 미군 장성 중 가장 한국을 이해하고 좋아했던 장군은 맥아더와 밴플리트 장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격퇴했다. 한국전에 참전한 외아들 지미 밴플리트 2세 공군 대위가 B-26 폭격기 조종 중 적의 대공포를 맞아 실종됐을 때 구출작전 중단을 지시했다. 53년 육군 대장으로 퇴역한 뒤에도 한국 재건사업에 도움을 줬다.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 지미의 실종 보도 신문기사.
왼쪽은 지미가 탑승했던 B-25폭격기의 모습



1952.1.20, 육사 재개교 행사에 참석한 이승만대통령부처와 왼쪽 앞줄부터 밴플리트 미8군 사령관,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 뒤로 정부 요인과 미군 지휘관들.

부임했다. 그리고 그가 결혼 10년만에 얻은 외아들 지미 밴플리트 중위는 미군의 해외복무 규정상 참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탄원서까지 써 가며 한국행을 자원해 참전했다.

1952년 4월 4일, 지미 밴플리트 중위가 임무 수행 도중 실종됐다. 미군은 즉각 수색대를 파견했으나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밴플리트 장군은 모든 수색을 중단시켰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지미 밴플리트 중위는 한국전쟁 파병을 지원하면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어머니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저는 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와 함께 비행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빌어주십시오”라고 썼다.

아들 지미의 실종 이후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은 “저는 한국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편지를 전사자 가족들에게 보냈다.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사진 중앙)이 전쟁의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미 본토의 미 육군 3군에서 기증한 옷가지와 먹을거리를



1962.7.14 밴플리트 장군이 서울 광장동 워커히ل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과 나란히 앉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밴플리트 장군은 당시 미국 실업인단 대표로 방한, 워커히 호텔 시설 중 자신의 이름을 딴 제임스 하우스 건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운정재단



1962.5.12 밴플리트 장군의 중앙정보부 방문 기념촬영



1962.5.26 최고회의 의장공관에서 박정희의장과 환담하는 밴플리트 장군에게 윤정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1963년 자의반타의반 외유시 미국 밴플리트장군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군의 책상에서 기념 촬영. 책상에 한국 태극기를 놓아둔 밴플리트 장군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JP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보라는 각별한 우정이 보이는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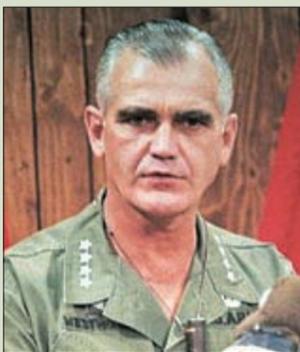
1972.4.25 미국에 '코리아소 사이어티'를 설립하고 회장을 맡고 있는 밴플리트 장군에게 김종필총리가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카터 매그루더 사령관 (Carter B. Magruder, 1900~1988)

미군 편제 변경으로 공식적 직책은 주한미군사령관, 미육군 8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으로 1959년~1961년 2년간 재임하였다. 4.19혁명과 퇴임 직전 5.16혁명을 맞이한 사령관으로 혁명정부와는 초기에 갈등을 빚었으나, JP의 적극적인 당위성 설득과 열정에 승복하여 이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동안 미국의 '떡갈나무 잎(Oak Leaf Cluster)' 공로 훈장·한국의 태극 공로 훈장을 비롯한 다수의 훈장 및 표창장을 받고, 퇴역했다.



윌리엄 C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Wash Westmoreland, 1914~2005)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월남전 때 미군 총사령관. 한국전에도 참전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군이 전장戰場에선 지지 않았는데 언론의 반전反戰 보도

와 여론의 변화, 여기에 영향을 받은 미국 국가 지도부가 전쟁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졌다고 말한다.



1962.11.1 미국 공식방문중 밴플리트 장군의 안내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웨스트모어랜드 교장(이후 월남주둔미군 사령관 역임)과 기념촬영.

라이만 렘니처 장군 (Lyman L. Lemnitzer, 1899~1988)



제6대 8군 사령관으로 1955년 ~ 1957년 재임하고, 제21대 미 육군참모총장, 제 대 미 합참의장과 제5대 NATO유럽군최고사령관을 지냈다.



렘니처 장군과 총리실에서 환담, 오른쪽은 베네트 유엔군사령관.

가이 멜로이 사령관 (Guy S. Meloy, 1903~1964)



3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1961년 ~ 1963년 재임하였다. 혁명정부 초기 버거 미대사와 함께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왼쪽부터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새무얼 버거 미국대사, 가이 멜로이 미8군 사령관(등 보이는 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본스틸 사령관 (Charles H. Bonesteel III, 1909~1977)



6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1966년 ~ 1969년 재임하였다. 1945년 3.8선 획정시 당시 육군 보좌관 리스크와 함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벽걸이 지도에 38선을 그

어 작업한 비화의 주인공이다.



1968.9.29 세계보이스카웃 제6차 극동지역회의의 본 스틸 UN사령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있다.

존 위컴 사령관 (John A. Wickham Jr., 1928~)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서울의 봄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에 사전관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1980.1.17 미8군 위컴 사령관을 위문하고 있다.